

# 제주인과 오름

- 오름의 총체적 가치평가를 위한 시론

윤 용 택\*

〈차 례〉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오름의 다양한 가치들 |
| 2. 오름의 가치평가를 위한 전제 | 4. 맺는말         |

## 1. 들어가는 말

기생화산으로 널리 알려진 오름<sup>1)</sup>은 현무암으로 이뤄진 해안과 함께 가장 제주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경관이다. 오름은 제주도 어디에나 있다. 해안에도 있고, 중산간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 1) '오름'오름'은 오늘날 제주지역에만 남아있는 독특한 옛말로 악(岳), 봉(峰/峯)을 뜻하는 말이다. '오름' 외에도 산을 뜻하는 '괴'의 흔적이 남아 '미·메·모' 등이 쓰이기도 하였다.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7-8쪽.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의 오름(1998)』에서는 오름을 '제주화산도상에 산재해 있는 기생화산구(寄生火山丘)'라 정의하고 있고(19쪽), 제주발전연구원의 보고서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2000)』에서는 오름을 '한라산 정상외 백록담을 제외한 제주도 일원에 분포하는 소화산체로 화구를 갖고 있으면서 화산분출물에 의해 형성된 독립화산체 또는 기생화산체'라 정의하고 있다(31쪽). 그러나 화산체가 아닌 오름도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의미로 오름은 '소규모의 산체(山體)'라고 할 수 있다. 현원학,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0쪽.
- 오름들의 정확한 명칭과 개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여기서는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의 오름(1998)』의 368개 오름을 표준으로 하고, 오름 명칭도 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도 있고,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도 있다.” 제주도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제주도라고 한다면, 오름을 뺀 제주도와 한라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오름이 있음으로써 제주도의 지표 면적이 늘어났고, 그만큼 제주인의 삶의 터전은 넓어졌다.” 제주인은 오름 아래에서 태어나 오름을 오르내리며 살다가 오름 위에 묻혀왔다.

오름은 우마를 키우기 위한 목초, 초가집의 재료인 띠 그리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땀감을 제공해주는 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산간의 오름들은 마을 공동목장으로 마을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장소였고, 마을 공동묘지 역할을 함으로써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제주인의 본향이기도 했다. 요즘도 음력 팔월 초 하루가 되면 별초를 하기 위해 중산간을 누비는 장면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곳곳에 산재한 368개의 오름들은 각각의 위치, 지형, 지질 등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 해왔다.” 해안에 위치한 오름들은 통신을 전하는 봉수대로, 그리고 중산간의 오름들은 인근의 초원지대와 더불어 중앙에 말을 공급해주는 목마장으로 적격이었다. 그러기에 ‘말을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속담이 전국에 알려진 것 역시 우연이 아니었고, 10소장(所場)이 선명하게 표시되는 제주도의 고지도(古地圖)들은 사람보다는 말을 위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73년(고려 원종14년)에 삼별초군이 여몽연합군에 의해 향과두리성 일대에서 평정된 이후에 제주가 일본과 남송을 공략하기 위한 군마(軍馬) 공급지가 되면서 1895년(조선 고종32년)에 공마제(貢馬制)가 폐지될 때까지 600여년간 중산간의 오름들은 말의 생산지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고 해양과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을 받

- 2) 368개의 오름 가운데 해안저지대(해발 200m 이하)에 143개, 중산간(200-600m)에 149개, 중산간과 국립공원 사이에 30개,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46개가 있다. 제주도, 『제주의 오름』, 제주도, 1998, 64쪽.
- 3) 현길언, 『한라산』, 대원사, 1994, 8쪽 및 36쪽.
- 4) 제주도 전체 오름 면적은 101Km<sup>2</sup>로 제주도 면적의 5.5%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368개 오름의 오목볼록한 굴곡으로 인해 제주인의 생활공간은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 5) 368개의 오름은 말굽형(174개), 원추형(102개), 원형(53개), 복합형(39개)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50m미만(115개), 50-100m(136개) 100-200m(99개), 200m이상(8개) 등 다양한 높이(比高)와 10만m<sup>2</sup>미만(112개), 10만-30만m<sup>2</sup>(169개), 30만-50만m<sup>2</sup>(79개), 50만m<sup>2</sup>이상(50개) 등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 32-42쪽.
- 6) 제주도, 『제주도 제주마』, 제주도, 2002, 376-378쪽

았다. 이를 위한 관방시설로 제주도내에는 3성(城) 9진(鎭) 25봉수(烽燧) 38연대(煙臺)가 설치되었다. 제주 도내에 있는 봉수 가운데 대부분은 해발 200m 이내 오름의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볼 때 제주의 오름들은 군마의 생산기지이자 방어시설로서 대단히 소중한 군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었지만, 제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오름은 수탈의 근원지 역할도 하였다.

그리고 오름은 현대사의 비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4·3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새벽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고,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유혈사태는 계속되었다.<sup>7)</sup> 이 시기에 마을 주변의 오름들은 신호를 알리는 파수대와 봉화대 역할을 했고, 중산간의 일부 오름들은 주민들의 은신처와 무장대들의 주둔지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토벌대들이 초토화작전을 벌이던 때에는 학살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sup>8)</sup> 이처럼 오름은 비극의 역사 현장이다.

농경과 목축 시대에 제주인은 자연의 순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오름은 시공간상으로 자연 생태계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산간의 넓은 초원을 목장으로 사용하다 십여 년이 지나면 이른봄에 불을 지른 뒤 여름에 흙을 갈아 곡식을 심는다. 다음 해에는 이 땅에다 밭벼(山稻)를 심고 삼년째는 조나 수수를 기른다. 이와 같은 삼년작을 두 번쯤하고 나서 땅의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2년 동안 목초를 심는다. 그 다음에는 십여 년 전의 방목장으로 모습이 바뀌는 것이다. 이 때는 초가지붕에 엮는 띠를 방목장에서 얻는다. 십여 년을 주기로 인위적인 생태계가 순환하는 것이다. 어린 목초가 돌아날 무렵에는 초원에 소와 말을 풀어놓는다. 방목은 중산간 초원지대뿐만 아니라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에서도 이뤄진다.<sup>9)</sup> 이처럼 예전의 제주인에게 오름은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오름은 제주인에게 삶의 터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소나 말을 키우는 마을 공동목장은 이제 불필요해졌다. 더구나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마을 공동목장이 몇몇 마을 유지의 명의로 등기되면서 이후에 외지인에 매각해버림으로써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지역사회에 갈등이 야기되고, 마을 공동목장이 해체되고 있으며,<sup>10)</sup> 중산간의 초원지

7) 채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994, 23쪽.

8) 채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권, 70-71쪽, 384쪽, 3권 49쪽, 4권 70-75쪽.

9) 김영갑, 『섬에 흘러 필름에 미쳐』, 하날오름, 1996, 오름사진 설명 중에서.

10) 강경선,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논리와 방법론』, 제주문화, 2000, 256-257쪽.

대에는 경주마나 고기소를 생산하기 위한 전기업(專企業) 목장이 들어서고 있다.<sup>11)</sup>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초가집에 엮을 때가 필요 없고 산에서 뿔감을 구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앞으로 장례 형태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차 바뀌게 되면 오름은 음택지로서의 기능도 사라질 것이다. 오늘날 더 이상 오름은 삶의 터전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오름의 기능은 달라지고 있고, 오름의 가치는 달리 평가되고 있다. 오름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장소였던 시절엔 오름은 심미적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 미적 거리를 두었을 때,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떠났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십여 년 전부터 오름을 찾는 이들이 오름의 우아한 곡선과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오름에 올라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름이 더 이상 처절한 삶의 현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제주인에게 오름은 단순한 심미적 대상에 불과한가. 만일 오름이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땅에 불과하다면 효용가치가 높은 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오름 개발에 앞서 우리는 지금 한창 논쟁이 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십여 년 전만 해도 갯벌은 기껏해야 조개나 줍던 별로 쓸모없는 곳으로 여겨졌고 농지가 갯벌보다 2~3배 효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런 평가에 의해 시작한 새만금간척사업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갯벌이야말로 농지보다 100배나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됨으로써, 갯벌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지기 시작한 것이다.<sup>12)</sup>

그리고 울창한 숲은 공기 정화기능, 토양유실 방지기능, 홍수와 가뭄 조절기능, 휴양보존기능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까지 헤아린다면, 거기서 매년 생산되는 임산물의 35배 이상의 다양한 가치를 생산해낸다는 평가도 나온다.<sup>13)</sup> 골프장이나 리조트 단지로 개발하면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10배의 이익이 난다고

11) 일제는 1933년 한라산 목야정리사업으로 리단위별로 목장조합을 구성하고 각 읍면을 통합할 수 있는 연합회를 조직 운영하였는데, 당시 제주도내 목장조합 수는 116개소로 면적은 32,290ha이었다. 이와 같은 목장조합은 광복 후 1960년대부터 마을공동목장으로 개편하여 주로 소와 말의 방목과 채초지로 사용되었다. 이후 중산간 목야지는 마을공동목장 뿐만 아니라 전기업(專企業)목장 및 관영목장 및 일반농가에 의해 이용되고 있으며, 1970년대에는 강력한 축산진흥정책에 의해 국내 대기업에서 투자 설치된 대기업목장들이 중산간의 초지권에 자리잡게 되었다. 2000년 말 현재 중산간 목야지에는 관영목장 5개소 749ha, 전기업목장 30개소 7,457ha, 마을공동목장 81개소 10,838ha, 일반농가 46,659ha 등이다.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1, 581-592쪽.

12) 윤용택, 『상생의 철학』, 동녘, 2001, 43쪽.

13) 김창호, 좌담「삼림과학과 생태계의 문제」, 『과학사상』12호, 1995년 봄, 37-38쪽.

해서 울창한 숲을 베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오름을 야생 그대로 보전(preservation)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명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로 패러다임 전환할 필요는 없다.<sup>14)</sup> 그리고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름을 개발(development)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오름을 야생 그대로 잘 보전하는 것이 결국 제주인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논자가 보전데 오름을 '개발' 할 것인가, '보호관리' 할 것인가, 아니면 야생 그대로 '보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간적으로는 지금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이익도 고려하고, 공간적으로는 여기 내가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보다 확장된 공동체의 이익까지도 배려하는 '확장된 공리주의'<sup>15)</sup> 내지는 '확장된 인간중심주의'<sup>16)</sup> 입장에서 그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368개의 오름은 저마다 다른 얼굴과 다른 사연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름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오름 전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각기 다른 오름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갯벌이나 울창한 숲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하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것을 보호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오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것이고, 오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오름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 2. 오름의 가치평가를 위한 전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을 채택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행복으로 보고, 그 행복을 누리는 집단은 누구이며, 그것을 측정하는 기간이 얼마나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오름의 개발과 보전을 논의하는

---

14) 윤용택, 「환경철학에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제82집, 대한철학회, 2002, 163-184쪽.

15) 윤용택, 「환경윤리의 한 대안으로서 확장된 공리주의」, 『철학연구』 제71집, 대한철학회, 1999, 123-152쪽.

16) 윤용택, 「환경철학의 한 대안으로서 확장된 인간중심주의」, 『대동철학』 제5집, 대동철학회, 1999, 185-209쪽.

경우에도 눈앞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적 효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름의 개발과 보전으로 인해 그 손익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오름의 개발과 보전으로 인한 손익은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차원에서 공간(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세대)적으로도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오름을 개발하거나 보전할 경우에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간적으로는 소유자<sup>17)</sup>, 인근주민, 제주도민, 국민, 인류 등까지 그 손익을 따져봐야 하고, 시간적으로는 현세대(현재), 미래세대(30년 이내), 아주 먼 미래세대(50년 이후)까지 고려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오름의 개발과 보전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수혜자와 오름의 보전과 개발로 생겨나는 피해자 사이에 그 손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오름을 파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이득인지를 제대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오름의 가치를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평가될 수 없으며, 파괴된 오름을 복원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경제적 후생수준을 화폐적 가치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환경질의 변화로 야기되는 시장재화의 가격이나 수량의 변동을 관찰하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서, 또는 환경질의 가상적 변화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환경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을 시도한다.<sup>18)</sup> 다시 말해서 환경질의 변화가 인간에게 어떠한 해독과 편익을 가져다주는가, 여행비용이 얼마나 증감하는가,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가계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측정하거나, 환경질의 가상적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해봄으로써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 대체로, 공간적으로 볼 때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 단기적이고 현재적인 입장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환경의 가치는 당연히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17) 368개의 오름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사유지 147개(41%), 국유지 107개(29%), 공유지 57개(15%), 공동소유 37개(10%), 재단소유 15개(4%), 기타 5개(1%) 등이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방안』, 46쪽.

18) 박승준·전영섭, 『환경의 경제적 가치』, 학현사, 1995, 4쪽.

살고 있는 환경은 자원의 양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유한하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 그리고 환경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는 공간적으로는 지역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으로, 시간적으로는 당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까지 그 고려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을 구성하는 영향변수가 무수히 많고, 상호 복합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누적·상승적 영향을 미친다<sup>19)</sup>는 점에서 정확히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란 쉽지 않다.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유용성의 측면에서 평가되는 도구적 가치 이외에도 비도구적 가치 즉, 본래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들도 있다.<sup>20)</sup> 오름은 목초, 띠, 빨감, 고사리 등을 채취하는 장소였는데,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됨으로써, 기존의 관점에서 볼 때 오름은 더 이상 도구적 가치가 없다. 오름이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도구적 가치만 인정하고 비도구적 가치들은 도외시됨으로써 오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도구적 가치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경제적 부의 척도였던 산업자본주의 사회는 가고 문화의 체험과 접촉이 경제적 부의 척도가 되는 문화자본주의 사회가 오고 있다. 문화산업사회 내지는 문화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징적·미학적·문화적 가치는 더 이상 비도구적 가치로 머물지 않는다. 문화산업사회에서는 상징적·미학적·문화적 가치야말로 가장 상품성 있는 도구적 가치가 된다.

심미적 가치도 인간에게 미적 경탄을 불러일으키고, 정서적 가치도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복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들이다. 다시 말해서 오름의 본래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도 인간의 행복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오름의 유용성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름의 상징적, 문화적, 심미적, 생태적 가치 등과 같은 가치들도 인간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인간에게 화폐적 가치 이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오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비도구적 가치로

19) 한상욱,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1999, 35쪽.

20) 데자르댕은 어떤 대상이 다른 무엇을 얻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와 상징적, 미학적, 문화적 가치 등과 같이 어떤 대상 그 자체가 지니는 본래적 가치(intrinsic value)와 어떤 대상이 인간의 가치평가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갖는 내재적 가치(inherent worth)를 구분한다. Joseph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3, 144-147쪽.

여겨졌던 가치들도 함께 평가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오름의 비도구적 가치들로 도구적 가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정확히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서로 비교는 가능하기 때문에 오름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손익 계산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는 골동품이나 예술작품의 비도구적 가치가 엄청난 화폐적 가치로 환산되는 것을 본다. 마찬가지로 그 동안 도외시되던 오름의 비도구적 가치들도 화폐적 가치들로 환산해 볼 필요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던 오름의 여러 가치들도 경제적 가치 속에 포함시켜서 개발과 보전의 손익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오름의 가치는 직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화폐적 가치로만 평가하지 말고, 심미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 등도 함께 고려하는 총체경제학(holoeconomics)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

### 3. 오름의 다양한 가치들

오름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름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오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발'의 사전적 의미는 "물적·인적 자원에 작용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높여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간과하던 오름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는 것은 오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요, 오름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오름에 대한 무형(無形)의 개발이다. 어쩌면 그러한 작업은 오름을 파헤치는 그 어떤 유형(有形)의 개발 이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오름 개발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오름은 목초, 띠, 딸감 등을 제공하는 장소, 우마를 방목하는 마을의 공동목장, 마을의 공동묘지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전기업(專企業)목장, 리조트 단지, 골프장, 과수원 등으로 바뀌고 있고, 바쁜 삶에 지친 현대인들의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sup>21)</sup> 그러나 오름의 보전과 개발의 손익을 따질 때는 단순히 오름의 지표면을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문제 삼

21) 오름의 이용실태를 보면, 조립지(76개), 삼림(66개) 국립공원(46개), 과수원(24개), 경작지(22개), 공동묘지(22개), 도시공원(22개), 초지(11개), 유료관광지(산굼부리, 일출봉,

을 게 아니라 오름 전체의 기능과 연관지으면서 따져봐야 한다. 이를테면 오름을 리조트 단지나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청정 지하수 함양과 보전 기능의 손실까지 감안해서 그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오름의 가치는 단순한 화폐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심미적, 위락적, 학술적, 경제적 가치 등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sup>22)</sup>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과거의 제주인에게 오름이 삶의 터전으로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도 오름은 제주인들의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 1) 환경적 가치

오름은 지하수를 함양하고 기후를 완화해주는 환경조절기능을 한다. 오름은 제주의 칼바람을 막아줌으로써 주변의 거주지와 농지의 가치를 높여준다. 그리고 오름의 초지는 한라산의 울창한 삼림과 함께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임으로써 대기 정화 기능을 한다. 앞으로 중국의 산업화, 제주의 도시화 등으로 대기 오염이 심화될 경우 녹색 초원인 오름의 대기정화 기능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텅빈 초원으로 보이는 오름은 결코 쓸모없는 땅이 아니다.

그리고 오름은 강우에 의한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는 표면적을 높여주고, 물이 토양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토양침식에 의한 자연재해 예방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sup>23)</sup> 그리고 오름은 지하수를 보전함으로서 제주인에게 깨끗한 지하수를 공급해준다. 다시 말해서 오름은 '삼다수'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제주도의 청정 지하수의 원천이다. 따라서 오름의 환경적 가치는 곧바로 화폐적 가치로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각의 오름의 지하수 함양 기능은 지하 지질구조와 토양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대규모 관광지나 골프장이 들어서거나 입주할 예정인 중산간 지대는

---

용머리, 안오름[향파두리성] 등 4개) 등이 있고, 오름 정상까지 포장도로가 개설되거나 시설물들이 설치된 오름도 상당수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 77-81쪽.

22) 제주발전연구원의 보고서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 연구』에서는 오름의 가치를 인문적 가치, 식물·생태적 가치, 지형·지질적 가치, 경관적 가치, 생태관광적 가치, 산림의 환경자원적 가치 등 여섯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위의 책, 182-189쪽 참조.

23) 제주도, 『제주의 오름』, 5쪽.

수질 침투율이 매우 크고 배수율이 양호한 지역이어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중산간 지대에서 송이(scoria) 채취나 골프장 건설 등으로 오염이 훼손될 경우, 제주도의 지하수의 수질 오염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이다.

특히 녹색 사막으로 일컫는 골프장 건설은 환경적으로 최악의 경우이다. 제주도 전체 임야면적의 5%를 육박하고 있는 36개(예정지 포함) 골프장은 건설과정에서 중산간의 환경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의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포하는 농약과 화학비료는 오염의 지표·지하·지상을 모두 오염시키는 삼차원적 오염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건설을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과 청정한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킴으로써 잃게 되는 손해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도 오염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제주의 생명인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되기도 제주인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골프장이 더 이상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제주의 경제를 위해서 골프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친환경적인 생태 골프장을 건설할 것을 제안해 본다. 골프장을 만드는 경우에 오염과 계곡을 변형시키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잔디가 좀 거칠더라도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음으로써 토양, 지하수,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문자 그대로 청정(green) 골프장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매끄러운 도로를 달리는 사이클경기도 있지만 야생의 험한 산길을 달리는 산악 자전거대회도 있고, 곧게 뻗은 도로를 질주하는 마라톤 경기도 있지만 높낮이가 심한 어려운 코스의 산악 마라톤대회도 있다. 잘 다듬어진 매끄러운 그린에서 벌어지는 골프도 의미 있지만, 이제는 중산간의 거친 초원을 그대로 이용하는 '친환경 생태골프'를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제주의 환경을 생각할 때 앞으로 건설될 골프장들은 '친환경 생태골프장'으로 되어야 하고, 제주에서 '친환경 생태골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주가 '친환경 생태골프' 운동의 진원지가 되어야 한다.

## 2) 생태적 가치

훼손되지 않은 오염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된다. 무더기로 돌아나는 야생초, 사철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야생화, 그리고 오염 분화구의 습지에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들은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사실, 아직 우리는 오름 생태계에 대해서, 그리고 오름과 인근 지역과의 생태적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 못한다.

368개의 오름들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각각의 오름뿐만 아니라, 제주도 생태계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상당수의 오름들은 개발되거나 개간되고 오름 주위로 수많은 도로가 뚫리게 됨으로써<sup>24)</sup> 오름들은 마치 섬처럼 격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름 생태계의 그물 구조를 해체시킴으로써, 각각의 오름 생태계뿐만 아니라 제주도 생태계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제주도의 생물상(生物相)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성과 고유성이 있다. 제주에 자생하는 관속식물은 1800여 종이 있고,<sup>25)</sup> 이 가운데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식물자원은 411종으로 우리나라 총 관속식물 약 4천여종의 10%를 상회한다. 특히 환경부 지정 특정 야생 멸종위기 및 보호식물 58종 가운데 30종이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고,<sup>26)</sup> 435종의 고등균류(버섯)가 자생하고 있다.<sup>27)</sup> 그리고 제주도의 곤충류는 3300여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sup>28)</sup> 국립중앙과학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라산은 곤충, 거미, 어류, 조류, 수생식물 등 6000여종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보고(寶庫)로 확인됐다.<sup>29)</sup> 그리고 동식물에 대한 탐구결과가 새롭게 발표될 때마다 미기록종, 신종(新種), 그리고 생물의 종과 속을 결정하지 못한 종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제주의 생물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못한 채 그 개체군과 개체수가 멸종되거나 그 수종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윌슨(E. Wilson)은 시장가격과 관광수입을 따지는 종래의 계량경제학적 접근은 야생종의 진정한 가치를 언제나 과소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야생종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상업적 이익과 심리적 즐거움 모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이 늘게 되면 생물종에 대한 새로운 상품적 이용과 새로운 수준의 심미적 이해가 가능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윌슨은 각각의 생물종을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인류의 자원으로 취급하여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지만 앎다면 후세를 위해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

2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방안』, 77-81쪽.

25) 김문홍, 『제주식물도감(증보판)』, 제주도, 1992.

26)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에 자생하는 멸종위기·보호야생식물』, 제주도, 1999, 20쪽.

27) 송인순,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생태연구소, 2002, 211쪽.

28) 위의 책, 182쪽.

29) 제주일보 제17886호(2004. 1. 8), 18면.

다고 주장한다.<sup>30)</sup>

그리고 애트필드(R. Attfield)는 생태계의 다양성이 유지되면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생태계를 잘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상호의존적인 생물계가 보전됨으로서 인간에게 이익이 되거나, 거대한 유전자 풀, 레크리에이션, 과학적 연구 등과 같이 인간에게 외적인 이익이 되며, 더 나아가 자연세계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즐겁기 때문에, 생태계의 다양성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sup>31)</sup>

그런 점에서 제주의 오름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생태계의 생명종 다양성을 위해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름의 동식물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오름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숨겨진 연결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름에 존재하는 동식물들과 오름 생태계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오름 생태계와 오름의 생물들에 대한 이해는 오름 보전과 오름 사랑의 전제 조건이다.

### 3) 역사적 가치

제주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요충지였기에 주변 열강 세력들의 지각변동 있을 때는 전선(戰線)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오름은 제주 역사의 현장이면서 한민족 역사의 현장이요 세계 역사의 현장이다.

제주의 오름은 1273년(원종 14년) 삼별초의 42년간의 대몽항쟁이 '붉은오름' (광령)에서 막을 내리면서 세계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였고,<sup>32)</sup> 이후 1374년(공민왕 23년) 최영에게 '목호(牧胡)의 난' 이 진압될 때까지 100여년 동안 몽고의 가혹한 수

30) 에드워드 윌슨, 『생명의 다양성』, 황현숙 옮김, 까치, 1996, 333-335쪽.

31) Robin Attfield,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Athens and London, 1991, 149-150쪽.

32) 삼별초가 여몽연합군과 항쟁을 벌였던 오름으로 붉은오름 이외에도 안오름(향파두리성), 극락오름(훈련지), 살핀오름(전망대), 파군봉(격전지), 서우봉(격전지) 등이 있다. 제주도, 『제주의 오름』참조. 한편, 몽고(원)는 점령 직후 제주도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직접 관리함으로써 일본과 남송 정벌에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몽고는 제주의 자연 조건에 적합한 우마 양육의 목장을 적극 조성하고, 각종 물자를 수탈하였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국립박물관, 2001, 112쪽.

탈은 이어지게 된다.<sup>33)</sup> 그러나 이후에도 중산간 오름들은 말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였고 1895년(고종 32년)에 공마제(貢馬制)가 폐지될 때까지 오름은 수탈의 근원지가 되었다.<sup>34)</sup>

그리고 전망 좋은 오름들은 조선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방어시설의 역할을 하였고,<sup>35)</sup> 일제 시대에는 군사기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일제 말기에 일본군은 섬 전역을 요새화할 때 제주도의 오름은 주둔지, 훈련기지, 격납고, 고사포진지 등으로 쓰이기 위해 여기저기 파헤쳐졌다.<sup>36)</sup>

한편, 오름은 제주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인 4·3사건의 주요 배경이 된다. 1943년 4월 3일 새벽 1시를 전후해서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오르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sup>37)</sup> 그리고 금오름, 도두봉 같은 마을 주위의 오름에는 깃발, 대

33) 1374년(공민왕 23년) 제주행병도통사(濟州行兵都統使)로 명을 받은 최영이 애월읍의 밝은오름, 금오름, 새별오름 등지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서귀포시 범섬에서 목호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제주는 102년만에 가혹했던 몽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김봉욱, 『제주통사(증보판)』, 세림, 2000, 68-69쪽.

34) 10소장으로 대표되는 제주도의 목장에는 일반적으로 4천-1만 필 내외의 말이 사육되어 모두 중앙정부에 공물(貢物)로 진상되었다. 제주 공마는 태종 8년(1408)에 공부(貢賦)로 정해졌는데, 해마다 바치는 연례공마(年例貢馬), 3년마다 바치는 식년공마(式年貢馬),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바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충당하기 힘든 것은 부정기적으로 바치는 말이었다. 즉 왕명에 의해 전마(戰馬) 혹은 무역을 위한 말이 징발이 수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더구나 관리들이 민간에서 기르는 말을 사사로이 빼앗아 중앙정부에 바치기도 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았다. 위의 책, 147쪽. 제주도, 『제주도 제주마』, 376-378쪽.

35) 제주의 방어시설인 3성 9진 25봉수 38연대는 주로 왜구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25개소 봉수 가운데 24개소가 오름에 설치되었다. 즉 사라(사라봉), 원당(원당봉), 도원(도두봉), 수산(물매), 서산(서우봉), 입산(입산봉), 고내(고내봉), 도내(어도오름), 만조(느지리오름), 구산(구산봉), 호산(월라봉), 저별(송악산), 당산(당산봉), 모슬(모슬봉), 남산(남산봉), 독자(독자봉), 달산(달산봉), 토산(토산봉), 수산(대수산봉), 성산(성산일출봉), 지미(지미봉), 자배(자배봉), 예촌(예촌망), 삼매양(삼매봉) 등이 오름 정상에 있었고 '왕가' 봉수만이 오름이 아닌 낮은 언덕에 있었다. 그리고 38연대 가운데 서귀포시에 있는 '연동연대'는 '망밭오름' 정상에 설치되었다.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9-61쪽. 제주도, 『제주의 오름』, 30쪽.

36) 일제의 야욕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오름으로는 새별오름, 어승생, 사라봉, 별도봉, 원당봉, 안새미(명도오름), 서우봉, 성산일출봉, 삼매봉, 생기악, 눈오름, 당오름(동광), 모슬봉, 첫알오름, 송악산 등이 있다. 고창훈 외, 『우리 땅의 의미를 찾는 제주기행』, 백산서당, 1991, 63쪽. 공군제8546부대 전사적지 탐방반, 『이런디 알았수과』, 공군제8546부대, 1996, 141-160쪽. 김종철, 『오름나그네 2』, 높은오름, 1995, 104-105쪽.

37) 1948년 4월 3일 봉화가 울랐던 오름으로는 물매(수산봉), 고내봉, 파군봉, 새별오름, 새

나무, 나팔 등을 이용하여 토벌대의 출동을 알리는 '빗개'라 불리는 보초가 세워 지기도 하였다. 한편, 오름은 무장대들이 주둔하거나 훈련하며 활동했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고,<sup>38)</sup> 양민들의 피난처로 되기도 하였으며, 학살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sup>39)</sup> 제주도 전역이 4·3사건 유적지 아닌 곳이 없지만, 특히 그 가운데 오름은 4·3 사건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사의 현장이다.

이처럼 오름은 그 자체가 제주도와 중앙 정부와의 국내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주변 강대국 사이의 국제관계를 이해시켜주는 역사적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오름은 굴종과 치욕, 갈등과 비극의 역사의 현장이다. 따라서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오늘날 제주의 오름은 살아 있는 역사체험 현장이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 4) 문화적 가치

오름은 제주인의 사유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오름들은 제주도의 개벽설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인이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설문대할망 설화에는 오름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sup>40)</sup>

미오름(삼의악), 바농오름, 민오름, 대수산봉(물미오름) 등이 있다. 제민일보4·취재반, 『4·3은 말한다』2권, 1장 및 고창훈 외, 앞의 책, 63쪽.

- 38) 무장대들의 근거지로는 새별오름, 바농오름, 새미오름(삼의악), 불레오름, 대수산봉, 눈오름, 남송이오름 정물오름, 거문오름, 붉은오름, 널오름(성판악), 돌오름, 물장오리, 미악산 등과 교래리 부근의 측화산 지대를 들 수 있다. 『4·3은 말한다』2권 101쪽, 384쪽 및 고창훈 외, 앞의 책, 63쪽.
- 39) 주민들의 은신처로 사용했던 오름으로는 녹하지악, 모라이악, 불레오름, 시오름, 다랑쉬굴, 노포메오름, 옷밤오름, 거린오름(한남), 물영아리, 민오름(수망), 보리악, 이승악, 가시오름, 병악(상창) 등이고, 집단학살을 당했던 오름으로는 새미오름, 사라봉, 도두봉, 삼매봉, 미악산, 다랑쉬굴, 바농오름, 서우봉, 갯거리오름(명월), 이승악, 셋알오름, 송악산, 모슬봉, 가시오름, 돌오름(상천) 등이다. 『4·3은 말한다』2권 1장, 8장 및 5권 4·3 일지, 그리고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 164-165쪽.
- 40) 옛날에 설문대할망은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쪽 발은 '한라산'을 딛고, 다른 한쪽 발은 '산방산'을 딛고 앉았고, '한라산'을 베개삼고 누우면 다리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그리고 심심할 때면 '고근산' 굴부리에 궁둥이를 얹어 앞바다 '범섬'에 다리를 걸치고 누워서 물장구를 치기도 하였다. 제주의 수많은 오름들은 설문대 할망이 치맛자락에다 흙을 담아 나갈 때,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새어 흘러서 된 것이다. 그런데 '다랑쉬오름'은 흙이 너무 많아 보여 주먹으로 봉우리를 탁 쳐버려서 움푹 패어졌다.

제주의 몇몇 설화와 전설에는 '아흔아홉'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sup>41)</sup> '백'은 완벽을 뜻한다. 그러기에 '백'이 '신(神)'의 숫자라 한다면, '아흔아홉'은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제주인들은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은 절해고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늘(자연)에 맡기고 기다려야 했다.<sup>42)</sup> 따라서 '아흔아홉'과 관련된 오름의 설화와 전설들은 절해고도의 극한적인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의 전설 속에는 제주인들의 간절한 꿈과 바람, 그리고 좌절과 달램의 사고가 들어 있다.<sup>43)</sup>

그리고 제주인들은 오름 주변에 마을을 형성하고,<sup>44)</sup> 풍수지리에 입각하여 거주

그리고 설문대할망이 한쪽 발을 '식산봉'에 딛고, 다른 한쪽 발은 '성산일출봉'에 딛고 앉아 오름을 찼는데, 그 오름 줄기의 힘이 어떻게 세었는지 옥지가 패어나가 옥지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소섬(우도)'이 되었고, '성산일출봉'을 구시동(빨래 바구니)으로 삼고 '소섬'을 팡돌(빨랫돌) 삼아 빨래를 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안에 있는 물들이 자기 키보다 깊은지 시험해보려 하였다. 제주시 '용소(龍沼)'가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 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고, 서귀포 '홍리물'이 깊다해서 들어 서보니 무릎까지 닿았고,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다가 그만 풍덩 빠져죽고 말았다.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96, 22-26쪽 및 김종철, 『오름나그네 1』, 231-232쪽.

- 41) 설문대할망이 옥지까지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명주 100동이 필요한데 한 동이 모자란 아흔아홉 동밖에 모으지 못해 아쉽게도 다리를 못 놓게 되었고, 100골짜기에서 한 골짜기가 모자란 '아흔아홉골'이어서 맹수와 인물이 나질 않으며, 영주십경의 하나인 '성산일출봉'의 암봉(岩峯)의 숫자가 100에서 하나가 모자란 아흔아홉이기 때문에 명수가 나질 않고, 오백형제 가운데 막내가 차귀섬으로 가게 되어 '오백나한'(영실기암)이 499개가 되었다는 전설 등이 있다.
- 42) 김종철은 한라산의 창조신 설문대할망이 '아흔아홉골'의 골짜기를 아흔아홉 개만 만든 것은 '맹수가 태어나지 않는 살기좋은 평화의 섬으로 영원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오름나그네 3』, 19쪽.
- 43) 강정효, 『한라산, 오름의 왕국·생태계의 보고』, 돌베개, 2003, 152 - 153쪽.
- 44) 마을 이름과 관련이 있거나 동일한 오름은 도두봉(도두동), 오드성오름(오등동), 봉아오름(봉개동), 능화오름(능화동), 별도봉(별도[화북동]), 더데오름(가가동), 월산봉(월산동), 하논(하논), 고근산(호근동), 영천악(영천동), 비양봉(비양도), 느지리오름(느지리[상명리]), 금오름(금악리), 검은덕이(금덕리), 과오름(곽지리), 어도오름(어도리), 물메(수산리), 고내봉(고내리), 당오름(송당리), 지미봉(종달리), 다랑쉬[월랑봉](월랑동), 쇠머리오름(우도), 우진제비(우진동), 저지오름(저지리), 당산봉[차귀악](차귀), 판포오름(판포리), 수월봉[고산](고산리), 입석오름(입석동), 모슬봉(하모리), 넓게오름(서광리), 신산오름(감산리), 예촌망(하례리), 성산[일출봉](성산), 대수산봉·소수산봉(수산리), 토산봉(토산리)등 36개가 있다. 제주도, 『제주의 오름』, 30-31쪽.

지와 묘지를 택하기도 하였다.<sup>45)</sup> 따라서 풍수지리에 따라 분묘군을 이루는 오름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의 오름에는 전설이 있고,<sup>46)</sup> 오름 주변의 마을들은 오름을 배경으로 한 설촌 유래가 있다.

그리고 제주에는 조선조까지 '당 오백, 절 오백'이라 할 정도로 신당과 절이 많았고, 지금도 각 마을에는 여러 형태의 '당(堂)'이 남아 있다. 당은 당신(堂神)이 머무는 빈 공간이지만, 단골 신앙민들이 드나드는 열려있는 공간이며, 인간의 문제를 기원하는 연행공간(演行空間)이다.<sup>47)</sup>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신당 129곳, 사찰 5곳을 파괴하고, 1970년대 미신타파 운동으로 민간신앙이 많이 약화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348개의 당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전히 제주 지역은 민간신앙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8)</sup>

당의 위치는 구릉(丘陵), 수림(樹林), 전답(田畝), 천변(川邊), 해변(海邊), 암굴(巖窟) 등 다양하다.<sup>49)</sup> 따라서 소규모의 산체(山體)인 오름은 민간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당오름'이란 명칭을 가진 오름이 4개(송당, 와산, 고산, 동광)나 있다. 그리고 당이 있었거나 제터 기능을 하는 오름까지 합하면 23개소나 된다. 그만큼 오름은 예로부터 성소시(聖所視)하고 축원을 드리는 민속신앙의 터로 제주인들의 마음 속 깊이 자리잡아 왔다.<sup>50)</sup> 그리고 무속신앙은 아니라 하더라도

45) 제주에는 6대 명혈의 전설이 있다. 6대 양택지로는 구유낭(狗乳囊/신제주 지경), 여호내(남원읍 의귀리), 사반(蛇蟠/안덕면 창천리), 한교(漢橋/한림읍 한다리), 의귀(남원읍 의귀리), 어도(애월읍 어도리) 등이고, 6대 음택혈로는 사라오름, 개미목, 영실, 도투명(저두[豬頭]), 반득(남원읍 의귀리), 반화(애월읍 지경) 등이다.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재판]』,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676-682쪽.

46) 진성기에 따르면, 제주의 지명과 관련된 1000여편의 전설 가운데 산(山)·악(岳)·봉(峯)과 관련된 전설이 219편으로 가장 많다. 『남국의 전설』, 학문사, 1978, 11쪽.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오름으로는 어승생(명마 전설), 쌀손장오리(삼신인), 물장오리(설문대할망), 원당봉(기황후), 당오름[와산](당신화), 오백나한(오백장군), 골머리오름(아흔아홉골), 고근산(설문대할망), 각시바위(열녀), 비양봉(생성), 정물오름(명당), 수월봉(수월이·노꼬), 물영아리(생성), 뇌시악(날개달린 장수), 식산봉(못 이룬 사랑), 본지오름(생성), 성산일출봉(설문대할망), 왕이메(삼신인), 대병악(육십많은 강별장), 군산(생성·금장지), 산방산(생성), 용머리(호종단), 영주산(불효자식), 모지오름(용 승천), 매오름(용궁아들 삼형제), 토산봉(호종단) 등이 있다. 김종철, 『오름나그네 1, 2, 3』 및 제주도, 『제주의 오름』.

47)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8쪽.

48)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97쪽, 243-244쪽.

49) 문무병에 따르면, 신성공간 '神聖 空間'으로서의 동산 또는 구릉에 자리잡은 당은 전체 조사대상 250개소 가운데 50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당신앙 연구』, 23쪽.

50) 진성기, 『남국의 무속』, 제주민속연구소, 1990, 186쪽 및 김종철, 『오름나그네 2』, 108-

도 종교와 관련이 있는 오름으로는 불레오름, 성불오름, 법정악(이상 불교), 세미소오름(천주교)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선인들은 제주도의 명승지(名勝地)를 찾아 시문(詩文)을 남겼고,<sup>51)</sup> 현대문학의 배경이 되는 오름들도 적지 않다.<sup>52)</sup> 따라서 오름에 대한 문화자료와 유적을 발굴하여 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오름과 관련된 설화·전설 등을 채록하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은 무의미하게 여기던 오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죽어 있는 오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며, 신화적 정서가 결여된 현대인들에게 감성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 5) 심미적 가치

오름은 영주십경(瀛洲十景) 가운데 무려 일곱 곳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지만,<sup>53)</sup> 오름이 처절한 삶의 현상이었을 때는 결코 심미적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오름은 일반인들에게도 심미적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름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감상하고, 멀리서 오름의 아름다운 곡선을 바라보고, 오름에 올라 주변경관을 조망하는 즐거움은 단순한 화폐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다. 제각기 위치와 모양을 달리 하는 368개 오름들은 그 자체가 심미적 대상이고, 각기 다른 주변경관과 원경관(遠

109쪽 참조. 제터(당) 기능을 하는 오름으로는 네 곳의 당오름 이외에도 소산오름, 봉아오름, 원당봉, 고근산, 다래오름(중문), 오백나한, 칠오름(상효), 물매, 바리매, 묘산봉, 입산봉, 밧돌오름, 녹남봉, 보름이(무릉), 녀시악, 운지악, 낭끼오름, 대수산봉, 군산 등이 있다. 제주도, 『제주의 오름』, 52-53쪽.

51) 한라산(백록담) 이외에 선인들이 시문을 남긴 대표적인 오름으로는 오백나한[靈室], 성산일출봉, 쇠머리오름[牛島], 산방산, 송악산, 오드성오름[瀛邱] 등이 있다. 오문복, 『영주십경소고』, 『제주도』통권 제90호, 제주도, 1991, 216쪽.

52) 4·3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 오성찬의 〈단추와 허리띠〉, 현길언의 〈한라산〉 등에도 여러 오름들이 등장한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 170-171쪽.

53) 영주십경인 ①城山日出 ②紗峯落照 ③瀛邱春花 ④正房夏瀑 ⑤橘林秋色 ⑥鹿潭晚雪 ⑦靈室奇巖 ⑧山房窟寺 ⑨山浦釣魚 ⑩古藪牧馬 가운데 ①성산일출봉 ②사라봉 ③오드성오름(방선문) ④한라산(백록담) ⑦오백나한 ⑧산방산 ⑩중산간초원 등은 직간접적으로 오름과 관련이 있다.

景觀)을 관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요,<sup>54)</sup> 문자 그대로 야생화 자연 전시장이다.

아름다움은 창조될 수도 있지만 발견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연물도 예술작품 못지 않은 아름다움의 대상일 수 있다. '목석원'의 기암괴석과 고사목, 그리고 '분재예술원'의 분재들은 우리에게 미적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물에 마모된 돌맹이나 얽혀 있는 뿌리도 예술 전시회에 전시되면 예술작품이 될 수도 있다. 이른바 '발견된 예술(found art)'인 셈이다.<sup>55)</sup> 뿐만 아니라 오름의 부드러운 곡선, 형형색색의 야생화, 그리고 오름에서 보는 경관 등도 심미적 가치를 지닌 아름다움의 대상이다.

예술작품은 인공품, 즉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 반면에, 자연은 그저 주어진 것이고 인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계획없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도 형식적인 미적 특질인 '통일성', '균형', '완전무결성', 그리고 '조화'를 필요로 한다. 예술작품도 이런 속성들이 무시된다면 아름답지 못하듯이, 자연도 인간에 의해 그런 속성들이 파괴된다면 아름답지 못하게 된다.<sup>56)</sup> 따라서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오름을 파헤치고, 오름 주위에 위락시설을 조성하고, 곳곳에 고층건물을 지음으로써 오름의 아름다운 곡선(sky line)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오름의 개발에도 반드시 오름의 미학이 필요한 것이다.

예술작품은 제작자가 있지만, 저 그대로의 오름은 제작자가 없다. 예술작품은 제작자가 예술작품임을 선포하고 감상자가 그것을 수용하지만, 제작자가 없는 그대로의 오름은 전적으로 수용자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오름에 대한 미적 체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름의 아름다움을 맛보려면 오름에 대한 미적 체험을 예술작품으로 담아낸 예술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오름을 노래한 시, 답사기, 사진, 그림 등<sup>57)</sup>은 분명 오름에 대한 심미안을 키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예술 경험은 대체로 단일 감각적인 반면, 환경 경험은 복합 감각적이다.<sup>58)</sup> 따라서 그 어떤 예술작품도 오름의 어느 한 면을 극대화시킬 수는 있어도 오름의 실제

54) 제주도 곳곳에 산재한 오름에 올라 각기 다른 주변 경관과 멀리 있는 경관을 볼 수 있기에, 368개 오름들은 그 자체가 천혜의 전망대이다.

55) 유리오 새판마, 『환경의 아름다움』, 김문환 옮김, 신구문화사, 2000, 95쪽.

56) 위의 책, 129-130쪽.

57) 오름을 노래한 시집으로는 김순이의 『오름에 피는 꽃』(제주문화, 2000), 답사기로는 김종철의 『오름나그네 1,2,3』(높은오름, 1995), 사진집으로는 서재철의 『바람의 고향 오름』(높은오름, 1998) 등이 있다. 이외에도 오름 사진을 많이 찍는 작가로는 김영갑, 김상부 등이 있고, 오름사진 단체로는 '오름사진연구회'가 있다.

58) 유리오 새판마, 앞의 책, 174쪽.

모습을 그려낼 수 없다. 왜냐하면 오름에 대한 지각은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서로 다른 감각이 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름은 다른 어떤 예술작품에서도 맛볼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해주는 심미적 대상이다. 오름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떠올리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심미적 정서를 강화해준다.

## 6) 위락적 가치

현대인들은 노동보다는 여가, 일보다는 레저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고, 잘 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내가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뭔가'를 묻지 않고, '내가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것 중에서 체험하고 싶은 것이 뭔가'라고 묻는다.<sup>59)</sup> 바야흐로 현대 자본주의는 제품생산에서 문화체험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본가들은 색다른 체험을 팔면서 돈을 벌고, 소비자는 색다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위락적(慰樂的) 가치는 곧 경제적 가치와도 연결된다.

인공적 환경으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기회가 되면 야생적 자연을 체험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빠름(速度)'과 '채움'(量) 위주의 현대적 삶은 때로는 '느림'과 '덜어냄'의 시간을 갖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200m 내외의 적당한 높이를 지닌 오름들은 그 자체가 심미적 대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 육체적 긴장들을 풀어주는 위락적 공간이 되고 있다. 십여 년 전부터 학교, 직장, 시민단체 등에서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제주도내의 오름동호회가 지금은 180여개에 이르고 있다.<sup>60)</sup> 주말마다 오름을 누비고 다니는 오름동호인들을 보면, 가치 '오름교(敎)'가 생겨났다 할만 하다. 오름은 이제 제주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단련하는 수련장이요, 친목을 다지는 사교의 장소가 되고 있다.<sup>61)</sup> 오늘날 제주의 오름은 제

59)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이희재 옮김, 민음사, 2001, 213쪽.

60) 김강집, "생활 속의 오름", 『제주인의 삶과 오름』, 탐라문화연구소·한라일보사 공동학술 토론회 자료집, 탐라문화연구소, 2003, 43쪽. 그리고 2003년 말 현재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오름동호인 클럽 32개, 인터넷카페 오름동호인 모임 70여개가 있으며, 오름 관련 인터넷홈페이지만도 580곳이 있다. 현원학, "오름과 사람", 『'오름', 그 생명의 가이드라인』, 제주문화포럼 제9회 심포지움 자료집, 제주문화포럼, 2003, 1쪽.

61) 오름을 오르는 이들은 ①건강을 위해서 ②사람과 자연을 만나기 위해서 ③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④예술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오름을 찾는다고 한다. 김창집, 위의 글, 43-44쪽.

주인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공간이요, '비움'과 '덜어냄'의 공간이다. 앞으로 오름은 제주인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비움'과 '덜어냄'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 오름의 개발과 보전을 논의할 때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듦에 그 빈곳이 있으므로 그릇의 쓰임새가 있다. 창문을 뚫어 집을 만듦에 그 빈곳이 있으므로 집으로서의 쓰임새가 있다. 그러므로 있음(有)이 이로운 까닭은 없음(無)의 쓰임새 때문이다"<sup>62)</sup> 라는 『老子』의 구절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관광객들에게 제주도는 여가와 휴식의 공간이다.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는 이유는 제주도가 꼭 차 있지 않고 비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관광객들에게 '비움'과 '덜어냄'의 공간이 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제주인들이 오름을 찾는 이유도 거기에 때문지 않은 야생적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잘 보전된 오름은 제주인과 관광객들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최적지가 될 것이다.

형태와 산세가 제각기 다르고, 오름에 깃든 사연과 주변경관이 제각기 다른 368개의 오름들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생태적, 심미적, 위락적 체험 공간이다. 일주일에 하나의 오름을 오른다 해도 10여 년은 족히 걸려야 모두 오를 수 있기에,<sup>63)</sup> 제주의 오름들은 늘 새로운 체험의 장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된 오름은 제주인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황금거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오름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오름의 야생화들이 수난을 당하고, 오름이 훼손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야생화가 사라진 오름은 단순한 화산재 언덕에 불과하다. 수십만 년에 걸쳐 형성된 오름이 우리 세대에 훼손되는 것은 자연과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오름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위락공간으로 남기 위해서는 오름 훼손을 규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 7) 학술적 가치

오름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 가치를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름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름에 대한

62) 埴以爲器，當其無，有器之用。鑿戶牖以爲室，當其無，有室之用。故有之以利，無之以爲用。『老子』11장.

63) 2003년 현재 368개 오름의 완등자는 개인 2명, 단체 1팀에 불과하다. 현원화, 앞의 글, 1쪽.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오름에 대한 지질·식생·생태 등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문학·역사·철학·미학 등에서의 인문학적 접근, 그리고 정치·경제·사회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오름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오름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름학'은 통학문(transdisciplinary) 내지 학계간(interdisciplinary) 연구라야 한다. 오름은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많은 학문적 소재를 제공해줄 것이다.

지금까지 오름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 특히 지질·지형·식생 등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있는 편이다.<sup>64)</sup> 여기에는 제주도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화산지대이고, 특히 단일 지역에 세계 최다의 기생화산(오름)이 분포하고 있으며,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이 보기 드물게 풍부한 식생 분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오름의 야생초와 야생화들이 어떤 학술적 가치를 지니는지, 오름의 곤충과 동물이 오름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도로와 골프장 건설 등과 같은 중산간 개발이 오름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오름등산 인구의 증가가 오름의 지형, 식생,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공학적 차원에서 골프장이나 대단위 리조트 단지 등과 같은 오름의 개발이 제주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좀더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한 기초 자료들이 있어야 오름의 보존과 개발이 궁극적으로 어떤 손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문학의 분야에서 오름의 명칭과 표기와 그 변천에 대한 연구<sup>65)</sup>뿐만 아니라, 오름과 관련된 설화와 고전 시문(詩文), 현대의 시와 소설 등에 대한 문학적 조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 분야에서는 오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외세가 제주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오름의 유형·무형의 사료 발굴과 그 역사적 의미 등을 밝히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오름과 관련된 풍수지리, 당문화(堂文化), 속신(俗信) 등을

64) 이에 대한 단행본으로는 제주도, 『제주의 오름』, 제주도, 1997. 강수현, 『제주의 오름』, 대왕사, 1996. 김종철, 『오름나그네 1,2,3』, 높은오름, 1995 등이 있다. 여기서 김종철의 『오름나그네』는 자연과학 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330여개 오름들의 지형, 표고, 비고, 식생 등에 대해 정리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65) 오름의 명칭에 대한 연구서로는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 제주대출판부, 1998이 있다.

통해 선인들의 사유체계를 분석해보고 그것들의 현대적 의미 등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름이 예술작품 못지않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준다면, 환경미학 내지는 생태미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오름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오름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제주의 오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름의 정치학, 오름의 경제학, 오름의 사회학 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시대적으로 오름의 정치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오름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근 부락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오름의 개발과 보전이 제주인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등도 필요하다.

## 8) 경제적 가치

오름이 직접적으로 화폐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제주인에게 오름의 경제적 가치는 오름의 초원을 목장으로 이용하던가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오름의 산허리를 깎아 송이(scoria)를 채취해서 건축 자재로 파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 오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을 때 그 화폐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은 제품을 사고 팔기보다는 색다른 '체험'을 사고 파는 문화산업시대가 되고 있다. 바야흐로 제품 생산과 소비가 경제적 부의 척도였던 산업자본주의 사회는 가고, 새로운 문화 체험과 접숙이 경제적 부의 척도가 되는 문화자본주의 사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문화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 동안 폄하되던 상징적·미학적·문화적 가치야말로 가장 상품성 있는 가치로 된다. 골동품이나 예술작품은 바로 상징적·미학적·문화적 가치 때문에 엄청난 화폐적 가치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오름의 상징적·미학적·문화적 가치들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새로운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 오름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생태체험, 역사체험, 문화체험, 심미체험, 위락체험 등의 장소로 적격이다. 따라서 오름은 생산의 장소로 이용되기보다는 체험의 장소로 이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오름은 다양한 체험의 장소로 제공되면서 거기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최근에 일부 여행사에서는 오름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오름을 활용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오름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름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탐방객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오름 휴식년제를 도입하거나 주어진 이동로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sup>66)</sup>

그리고 오름은 형태와 경관에 따라 주변 생태계와 그 원형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용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름의 분화구를 이용한 음악회와 야외연극 공연, 오름에서의 설치미술 내지는 퍼포먼스 등을 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름 트래킹, 오름 마라톤, 그리고 오름 사이를 넘나드는 말경주(horse rally) 등도 오름을 이용한 문화체험 상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것들 역시 오름 생태계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오름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단순한 화폐적 가치만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오름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는 화폐적 가치 이외에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치들, 즉 환경적 가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심미적 가치, 위락적 가치, 학술적 가치 등이 더해졌을 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오름의 개발, 보호, 보전 등을 논의할 경우에도 그러한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고려하는 총체경제학(holoeconomics)의 입장에서 그 손익을 따져야 할 것이다.

#### 4. 맺는 말

오름은 결코 쓸모없는 땅이 아니다. 제주의 오름은 세계에 보기 드문 지질과 지형을 지니고 있어서 온 인류가 잘 보존해야 할 '세계자연유산'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의 오름은 우리 민족에게 몽고지배 이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선포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주와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나라와 주변 열강 등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민족문화유산'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오름은 앞으로 파헤쳐

66) 고은경, 「제주도의 오름 생태관광 해설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4-85쪽.

질 개발예정지가 아니라 잘 보존하고 간직해야 할 '자연문화유산' 인 것이다.

우리에게 보다 시급한 것은 오름의 원형을 훼손하는 유형(有形)의 개발이 아니라, 오름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내는 무형(無形)의 개발이다. 오름의 보전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되기 위해서는 오름의 가치가 충분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우리는 오름의 가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름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름에 대한 총체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오름과 관련해서 인문과학·자연과학·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이른바 '오름학' 이 필요하다.

오름은 제주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삶의 터전이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름은 제주인에게 물질적·정신적 버팀목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발굴한 오름의 가치와 의미를 바탕으로 오름을 다양하게 이용해야 한다. 각기 다양한 특성과 사연을 지닌 368개 오름들이 제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때, 오름도 살고 제주인도 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오름의 상품적 가치를 먼저 포착한 자본가들은 경관이 좋은 곳을 골라 골프장과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오름을 배경으로 한 골프장과 리조트 단지는 단기적으로는 제주도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제주인의 삶의 질을 훨씬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여러 형태의 오름 개발들 역시 철저한 규제와 감시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오름의 훼손과 파괴는 물론 제주인의 삶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제주의 오름은 제주의 정원이다. 오름은 비어있어서 뭔가를 채워야 할 땅이 아니라, 비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땅이다. 우리는 '채움' 과 '있음'의 효용성만 따지는 유(有)의 경제학에서 '비움' 과 '없음'의 효용성도 생각하는 무(無)의 경제학도 모색해야 한다. 오름은 자연 그대로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비어있음으로서 더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경선,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논리와 방법론』, 제주문화, 2000.  
강수현, 『제주의 오름』, 대왕사, 1996.  
강정효, 『한라산, 오름의 왕국·생태계의 보고』, 돌베개, 2003.  
고창훈 외, 『우리 땅의 의미를 찾는 제주기행』, 백산서당, 1991.  
공군제8546부대 전사적지 탐방반, 『이런디 알았수과』, 공군제8546부대, 1996.  
곽승준·전영섭, 『환경의 경제적 가치』, 학현사, 1995.  
김문홍, 『제주식물도감(증보판)』, 제주도, 1992.  
김봉옥, 『제주통사(증보판)』, 세림, 2000.  
김순이, 『오름에 피는 꽃』, 제주문화, 2000.  
김영갑, 『섬에 흘러 필름에 미쳐』, 하늘오름, 1996.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재판]』,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3.  
김중철, 『오름나그네』1, 2, 3권, 높은 오름, 1995.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1.  
문현병 외, 『상생의 철학』, 동녘, 2001.  
서재철, 『바람의 고향 오름』, 높은오름, 1998.  
송인순,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생태연구소, 2002.  
에드워드 윌슨, 『생명의 다양성』, 황현숙 옮김, 까치, 1996.  
오창명,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1998.  
유리오 세판마, 『환경의 아름다움』, 김문환 옮김, 신구문화사, 2000.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이희재 옮김, 민음사, 2001.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1, 2, 3, 4, 5 권, 전예원, 1994.  
제주국립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국립박물관, 2001.  
제주도, 『제주도 제주마』, 제주도, 2002.  
제주도, 『제주의 오름』, 제주도, 1998.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에 자생하는 멸종위기·보호야생식물』, 제주도, 1999.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오름의 보전·관리 방안』, 제주도, 2000.  
진성기, 『남국의 무속』, 제주민속연구소, 1990.

- 하순애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한상욱,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1999.
- 현길언, 『한라산』, 대원사, 1994.
-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96.
- 老子, 『老子』
- Joseph R. DesJardins, Environmental Ethics,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3.
- Robin Attfield, The Ethics of Environmental Concer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1

## 2. 논문 및 발표문

- 고은경, 「제주도의 오름 생태관광 해설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명철,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창집, 「생활 속의 오름」, 《제주인의 삶과 오름》 탐라문화연구소·한라일보사 공동학술토론회 자료집, 탐라문화연구소, 2003
- 김창호, 좌담 「삼림과학과 생태계의 문제」, 『과학사상』 12호, 범양사, 1995년 봄.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문용포, 「바람앞의 등불, 제주의 오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오름', 그 생명의 가이드라인》 제주문화포럼 제9회 심포지움 자료집, 제주문화포럼, 2003.
- 오문복, 「영주십경소고」, 『제주도』통권 제90호, 제주도, 1991
- 윤용택, 「환경윤리의 한 대안으로서 확장된 공리주의」, 『철학연구』 제71집, 대한철학회, 1999.
- 윤용택, 「환경철학에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제82집, 대한철학회, 2002.
- 윤용택, 「환경철학의 한 대안으로서 확장된 인간중심주의」, 『대동철학』 제5집, 대한철학회, 1999.
- 현원화, 「오름과 사람」, 《'오름', 그 생명의 가이드라인》 제주문화포럼 제9회 심포지움 자료집, 제주문화포럼, 2003.
- 현원화,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지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